

왕도익산, 세계유산 등재 3주년

관광활성화 위해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홍보사업 중점 추진
천년별밤캠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채로운 행사 열어

익산시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맞아 백제왕도의 역사 정체성을 높이고 세계유산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세계유산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높일 계획으로 우선 마한·백제 문화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와 학술 심포지엄을 9월에 개최해 학술적 가치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왕궁리유적에 공방(9,000㎡), 화장실유적(100㎡), 정원유적(800㎡) 등 핵심유구 정비

로 백제왕궁의 면모를 갖추고, 후원영역의 조경식재 및 탐방로 정비 등 관람객들의 탐방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륵사지의 강당지 등 건물지 기반부 및 배수로에 문화원 부재들을 교체, 재위치를 잡는 정비와 함께 미륵사지 석탑의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정비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전한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을러 익산시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 증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홍보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백제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 함께 백제문화유산

주간(7.8~7.14)의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일 반공개된 익산 쌍릉(대왕릉)에 대해 7.9~7.13까지 매일 2회(10시, 14시)현장에서 발굴조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한편, 문화재 야행기간 중 시민들이 왕궁에서 1박2일 체험할 수 있는 천년별밤캠프도 함께 열리며, 또 미륵사지석탑의 20년간 보수정비 기록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전국에 방영하고, 외국인 유학생(7.12), 문화재 기자단(7.11), 문화인(7.20~21), 관광객행사(10월중) 캠퍼 등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를 초청해 익산의 역사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3주년을 맞아 시민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읍시예술회관서 밴드 뮤지컬 '스타라이트' 공연

라이브 밴드 뮤지컬 '스타라이트'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스타라이트는 현재 활동 중인 밴드 스타라이트를 모델로 한 작품이다. 밴드 멤버들의 삶과 꿈을 극화한 드라마와 무대에서 직접 부르는 노래가 어우러진 라이브 밴드 뮤지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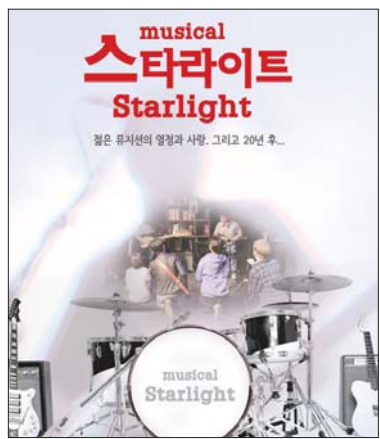
밴드 리더 조범준(그룹 시나위의 보컬 출신 작곡가)이 직접 작곡, 출연하고 밴드 멤버들이 실제 공연을 펼친다. 지난 2013년 대학로 풀빛극장에서 5주 간의 초연 당시 관객들과 언론의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뮤지컬 흥길동, 팔레타 미스피가 로 등을 연출한 김승원이 연출에 참여해 관심

을 모은다.

공연 관계자는 "짧은 뮤지컬의 사랑, 꿈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재창작했고, 밴드 넘버 창작곡 20여곡을 라이브로 실연하여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연 관람료는 2층 5만원 3층 3만원(장애인 50%, 청소년 30%)으로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이달 20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음 달에는 가족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 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예술인 취약분야 '전문상담컨설팅 데이' 운영

전북예술인의 복지증진 위한 핵심거점으로서 역할 가동
회계·법률·노무·행정 등 종합적 대행서비스 창구 마련

지난해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대표이사 이병천) 예술인복지증진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재단에서는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7월 4일부터 예술인 고통해소를 위한 '예술인전문상담'을 본격 추진한다.

예술인이 대부분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행정 등 법적 문제 등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7월부터 12월까지 총 24회에 걸친 회계·법률·노무분야 상담 컨설팅데이가 운영된다.

이번 컨설팅은 회계·법률·노무분야 도내 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 상담이 필요한 예술가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

해 예약하거나 상담담당 센터에 방문하면 실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무분야는 서면계약체결 상담, 불공정행위 피해, 예술인들의 근로, 임금문제 등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행정컨설팅, 기타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회계분야 컨설팅은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상담 등 예술창작과 계약관련 법적 자문도 제공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진아 팀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유사한 사례에 노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를 정리·공유하는 등 올해 시범운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 전문상담 컨설팅데이 운영 외에도 센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활동증명, 창작지원금 신청대행 등 중앙연계로 진행되는 행정지원 서비스는 물론 예술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지원, 다양한 장르간 예술인의 연대강화와 현장의견 수렴목적의 예술인복지포럼단 운영, 예술활동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신진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북예술회관 내 전시공간을 무료지원하는 신진작가 전시프로젝트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09:30~11:30)과 오후(02:00~05:00) 두차례에 걸쳐 예술인복지증진센터(전북예술회관 지하)에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j_7447@hanmail.net) 발송 또는 유선(063-230-7448,7449)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국악인 오정해와 함께하는 명품공연

익산예술의전당서 오는 20일 익산시민은 무료 관람
문화유산·전통예술 함께 즐기는 전통종합예술공연
'새날일출'·'지역동행'·'새날마중'·'얼썬한판' 등

무형문화재와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명인 명창의 명품공연인 '2018 굿GOOD 보러가자'가 익산예술의전당과 한국문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오는 20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굿GOOD 보러가자'는 익산예술의전당이 한국문화재단의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 익산시민에게 무료로 선보일 수 있게 된 뜻깊은 공연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동안 전국의 68개 지역을 순회하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 종합예술공연이다.

특히 국악인 오정해씨가 진행을 맡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새날일출', '지역동행', '새날마중', '얼썬한판'의 순서로 흥과 신명의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의 첫 막을 열어들 '새날일출'에선 한국의집예술단의 화려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오고무' 공연이 펼쳐진다. 또 국내 최고의 명인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동행'에선 김일구 명인의 아쟁산조를 시작으로 연희단 '쟁: 도내기'의 해학과 익살의 '복청사자춤'이 관객들

과 한바탕 신명의 무대를 만든다. 이어서 김청만 명고의 정단에 맞춰 김일구 등 두 명인의 맛깔스러운 판소리 입체창 공연이 흥을 더한다. 한반도의 문화통일을 기원하는 '새날마중'에선 한국의집예술단의 화려한 '부채춤'이 무대를 채우게 된다.

화합의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의 장, '얼썬한판'에서는 이리농악보존회의 다채로운 기예와 흥겨운 풍물 한 판이, 마지막으로 줄곧대 권원대 명인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대미를 장식하며 2018 '굿GOOD보러가자' 익산공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익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역 스토리가 가미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고의 명인과 젊은 예술인 등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무형유산 전승 보급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연은 전석 초대로 티켓에는 네이버 예약에서 가능하며 네이버 로그인 후 검색창에 '굿 보러가자' 검색 후 클릭하면 된다. 단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063-859-3254로 전화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남원시, 22일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 시작

남원시는 상설공연으로 오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에서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을 연다.

공연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며, 상설공연 기간 중 토요일은 '한옥지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및 '남원창극 춘향만리' 공연이 춘향테마파크 내 동원에서 유료로 진행된다.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공연으로 시작된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은 올해로 23년째를 맞으며, 그동안 여름 휴가철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펼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불거리 제공을 해오며 남원의 대표적인 여름철 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 했다.

공연에서는 국악, 농악, 클래식, 대중가요, 포크 등 다양한 장르가 펼쳐지고 올해는 12개 단체에서 총 22회 공연을 준비했으며, 공연 일정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남원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낮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돌레길에서, 밤에는 소리여행 상설공연장에서 여름밤의 아름다운 공연을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